+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 제100회기 특집호 |

2025년
통권 제45호



100번의 회기
세종을 바꾸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0회기

시민을 더욱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의 삶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행복하게,
함께 합니다.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이후, 제100회 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우리 의회의 성장과 세종시의 도약을 함께 증명하는 값진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해 온 의회사무처 구성원들,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한 세종시는 이제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으며,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와 도약의 시간 속에서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왔습니다. 시민의 삶을 살피고 목소리를 담아내며, 그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3년간 우리 의회가 다룬 의안은 4,553건에 달합니다. 2,916건의 조례안, 163건의 예산안, 117건의 결의안 등은 우리 의회의 고민과 책임, 그리고 노력을 수치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600건이 넘는 5분 자유발언과 300여 건에 가까운 시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며, 시민의 삶 곳곳에 변화를 이끌어 오는 더 나은 세종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00회기는 우리 의회가 이제는 당당히 성숙한 지방의회로 서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17번째이자 마지막 광역자치단체로서, 규모는 작지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이 직면한 위기를 가장 앞서 극복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으로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되었고,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이 발의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이전 부처의 이전, 행정수도 로드맵 마련과 구체화,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한뜻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과 집행부,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그 길을 빈틈없이 열어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외적 과제뿐 아니라 시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살피겠습니다. 작은 생활 불편부터 교육과 복지, 안전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은 오롯이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의회에 주어진 권한도 결국 시민의 신뢰 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더 가까이, 의회답게, 세종답게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추경예산안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00회기는 세종시의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임시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 채 성

목차

+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제100회기 특집호

발행일 2025년 10월 22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임채성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예로부터 100은 완성과 충족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백성百姓, 백발백중百發百中, 백년가약百年佳約과 같이 온전한 공동체와 능력, 그리고 사람 간의 인연을 완성하는 법적 결속까지 나타내는 기호로 쓰였다. 세계적인 역사와 함께 흘러온 언어 곳곳에도 100의 의미가 숨어있다. 성경, 한 구간의 세기, 수치 기준 등 100은 물리적 시간과 집계의 단위를 넘어서 종교적, 역사적, 과학적 맥을 아우르는 사회적 상징을 담고있다.
2025년 10월, 이 뜻깊은 숫자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맞이했다. 통권 제45호에서는 2012년부터 이어진 지난 100번의 회기들을 기록했다. 주홍 열매들이 땅과 가까워지는 수확의 계절, 세종시의회가 가을과 함께 거둬들인 100번의 회기를 조명한다.



04 개회사

08 축사

10 특별기획 1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의 시작과 현재를 잇다





16 특별기획 2
세종 시민 공감 우수조례

20 특별기획 3
숫자로 보는 의정 궤적





22 펜 끝에 담은 의정

24 시민×의회 손 맞잡고

26 의정포커스

28 결의안

29 주요안건 처리현황

34 의회인터뷰

50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소식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63 5분 자유발언

70 세종에서 놀자, 쉬자

72 의정주요뉴스



74 입법정보

- Ⅰ 생활법령
- Ⅱ 주요입법동향
- Ⅲ 법령해석사례
- Ⅳ 최근시행법령
-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90 의회홍보채널 안내

축사 1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간 시민의 뜻을 대변해 온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0회기를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0회기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의회의 발자취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 뜻깊은 회기는 시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 활동,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민의가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의 균형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은 귀중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독립적 권한 분권 시대를 열었고,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핵심 기관으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그 중심에서 세종시의회가 걸어온 행보는 우리 세종시의 밝은 내일을 여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세종시는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범국가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앞으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세종시는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다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00회의 회기가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세종시의회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 범 산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임시회와 함께 100번째 회기를 맞았습니다. 100이라는 꽉 찬 숫자를 향해 달려온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 지방의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행보를 회고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2012년 세종시의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이지만 세종시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데 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시의회가 세종교육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회에서 힘을 쏟아 주셨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말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종시의회가 200번째 회기를 맞을 때, 세종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세종시의회의 노력을 빼놓지 않도록, 의회가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0번째 회기를 축하드리며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의 시작과 현재를 잇다



◆ 2012년 7월 1일
제1회 임시회 개최

◆◆ 2013년 11월 13일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토론회



◆



◆◆

제1대 의회, 땅을 다지는 시간

2012년 7월 1일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초대 의장으로는 충청남도의회 제9대 부의장을 역임한 유환준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1부의장은 연기군의회 5, 6대 의원을 역임한 김선무 의원, 제2부의장은 연기군의회 제6대 의원을 역임한 강용수 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어 원 구성이 완료됐다.

7월 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이어 같은 달 6일 드디어 첫 개원식이 열리며 자치행정이 첫발을 뗐다.

세종 시민은 물론 수많은 충청인의 기대와 관심을 딛고 출발한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제1대 의회)에서는 생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그야말로 '세종의 땅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소속 정당도 다른 의원들로 꾸려진 세종시의회는 시의 출범과 안정화를 위한 길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단기간에 광역의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썼다.

특히 세종형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구성해 로컬푸드를 명실상부한 성공 모델로 키워내는 것에 이바지하며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도시발전으로 인해 소외되는 원주민이 없도록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더불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평균 9.6건의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처리하며 쉴 틈 없이 입법활동을 이어왔고, 정부의 세종시청사 건설 사업비 삭감에 대응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 형성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 2016년 9월 1일
역대의장단 초청 간담회

◆◆ 2016년 10월 18일
양성평등 기본조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2대 의회, 세종을 그리다

2014년 7월 15일은 '열린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균형의회, 연구의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제2대 의회)가 개원한 날이다. 제1대 의회가 땅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제2대 의회는 세종시라는 거대한 도시가 윤곽을 잡아간 시간이었다. 임상전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장승업, 윤형권 의원이 부의장으로 뽑혔다. 체계가 확립된 세종시의회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역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외부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움직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정질의의 증가가 돋보였다. 신도심 경제 문화 활성화, 다문화 가정, 오지 마을 교통 대책, 산업단지 확대 활성화 등 신도심과 구도심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여실히 보인 기간이었다.

아울러 2014년 12월 8일 임상전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시설인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유치하자고 제안하며, 훗날 지방자치회관이 개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2017년 12월 착공, 2019년 8월 개관).

2016년 6월 30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는 만 36세의 나이로 고준일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전국 광역의회 의장 중 최연소 당선이었다. 고 의장은 소통과 협의를 중요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으며, 같은 해 9월 1일 그 기조에 따라 의정 발전을 위해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이 시기에는 특히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최초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개정 방안'에 대하여 열린 간담회로, 해당 간담회에는 전문가, 행정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세종시의 양성평등 사회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제3대 의회, 뿌리내린 행정수도

2018년 7월 1일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제3대 의회)가 원 구성을 알리며 새로이 출발했다. 특히 새로이 선출된 제3대 의회 시의원들은 평균 49.3세의 나이를 기록하며 의정 세대를 교체했다. 서금택 의장을 필두로 안찬영 제1부의장, 이영세 제2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전반기 의회를 열었으며, 의정 슬로건은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로 선정했다. 서금택 의장은 "다양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 시기에는 의원정수도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하며 교육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안정화한 의정 기반에서 세종시의회는 대외적 소통을 더욱더 강화했다.

2020년 7월 1일, 만 34세라는 나이로 역대 최연소 이태환 의장이 당선되고 노종용 의원과 이윤희 의원이 각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며 본격적으로 젊은 의회의 시대가 열렸다. '소통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두루 갖춘 의회상'을 만들겠다고 전한 이 의장의 뜻으로 2020년 8월에는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 브리핑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 지원이 강화되는 변화도 일어났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문이 열렸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같은 해 6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한 것에 이어 2023년 2월 6명을 추가로 임용하며 정책 인력 전문화의 첫 장을 열었다.



◆ 2022년 6월 20일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

◆ 2022년 7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



◆◆ 2023년 4월 27일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제4대 의회, 이제 피어날 시간

2022년 개원해 현재까지 활동 중인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제4대 의회)는 세종시의회를 '행동하는 의회'로 키워낸 기간이다. 20명의 의원 중 17명의 의원이 초선이었으며, 평균연령 또한 42.8세로 매우 젊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한 제4대 의회는 그 어떤 기간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창출했다.

먼저 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회(의원 20명)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는 5.4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젊은 의회'라는 기대 섞인 우려를 단숨에 성과로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그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 역할론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3부에 걸쳐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2024년 6월 28일에는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어 출범했으며, 이어 같은 해 8월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새로운 슬로건이 내걸렸다. 9월 6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 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주민조례청구 1호 조례안 발의(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가 이루어지며 주민 주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성과도 이루어냈다. 곧이어 11월에는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를 위해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한 성과였다.

세종시의회는 4번의 개원, 100번의 회기를 거치며 시의성 있는 현안을 반영한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구성,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수해복구 봉사활동,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 등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지속했다.

39만 시민, 2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22개의 소속기관, 16개의 국책연구기관과 10개의 공공기관… 세종은 이제 피어나는 계절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찬란한 계절 속 오늘의 세종은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땀방울이 키워냈다. 그 진심 어린 행보를 세종시의회가 선두에서 함께했음은 자명하다.

국회세종의사당 착공과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아직 요원하지만, 그 아득한 안개를 넘어 윤곽이 보일 날은 머지않았다. 행정수도라는 이름의 시작에서부터 오늘까지, 시민과 함께 걸으며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흘릴 땀이 그 길을 서서히 앞당길 것이다.

◆ 2024년 7월 2일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세종 시민 공감
우수조례

세종시의회는 제100회기를 맞이해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 세종시의회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자체평가로 상위 50개를 가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로 추린 후
의정모니터단, 입법고문, 사무처 직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를 추려 시민 투표에 부쳤다.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시민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를 실천으로 보여준 시민 공감 조례들,
39만 세종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세종시의회 우수조례를 소개한다.





전국최초

1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득표수 **287**(22%)



2위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민들에게 우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 복지를 증진하고자 세종형 수요응답형 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정된 노선과 운행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인 '이응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교통비 부담 절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 강화 등의 효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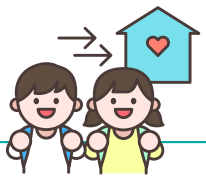
득표수 **214**(17%)



3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적응력을 키우며, 수중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생존 방법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제정했다.

득표수 **149**(12%)



4위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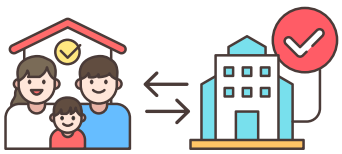
세종시 내 각종 범죄와 안전 취약지역에서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 예방 정책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득표수 **127**(9.8%)

5위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역공동체가 연대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이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득표수 **123**(9.5%)

6위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했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양육 및 그 아동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법제화했다.



득표수 **11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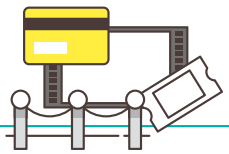
전국최초

7위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인이 사업 신청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 고령화 및 농업 행정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농업인,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쌀직불제, 농업 보조금 등 복잡한 농업 관련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했다.

득표수 **95**(7.4%)



전국최초

8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청소년이 문화활동, 직업체험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에게 문화카드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득표수 **94**(7.3%)

9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각종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행사장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검을 실시하며 행사 규모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리 요원 확보, 소관 부서와 지원부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득표수 **60**(4.6%)

전국최초

10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 초등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 등을 위한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해 학생들이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고, 구강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득표수 **29**(2.2%)

숫자로 보는 의정 궤적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총 100번의 회기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숫자로 남긴 궤적을 만나본다.

※모든 기록은 제100회 임시회 폐회일(2025년 9월 8일) 기준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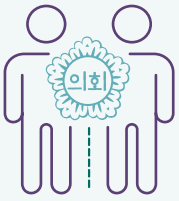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리 안건

총 **4,643**건

- 조례안 **2,972**건
- 예산안 **164**건
- 결의안 **118**건
- 5분 자유발언 **625**건
- 시정, 교육행정 및 긴급현안질문 **287**건

역대 역임 의원 수는?



총 **60**명

제1대~2대 의회 15명, 제3대 의회 19명,
제4대 의회 21명으로 총 60명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세종시의회 의안번호 100번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헌혈권장 조례안 (2012. 7. 1. 시장)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00회기 동안 구성된 연구모임 수는?



총 **37** 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 연구모임(대표의원 이경대)부터 2025년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 37번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썼다.



'의회에 바란다' 처리 건수는?

총 **1,28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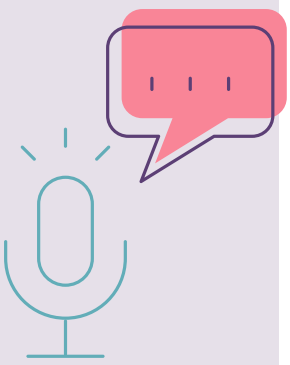
세종시의회는 출범 이후
총 1,288건의 '의회에 바란다'를 처리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세종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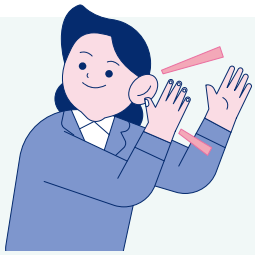
역대 최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 **4** 대 의회

현재 종료 시점이 8개월 남았음에도
241건의 5분 자유발언 횟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 5분 자유발언을 보유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역대 의정모니터단에서 활동한 시민 명수는?



총 **120** 명



시민사회에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제1기 20명 모집으로 시작해 제3기에 들어서는 40명으로 확대 모집하며 점차 참여 시민을 다양화해 운영했다. 시민이 의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성과로,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100회기를 보낸 세종시의회의 여정과 미래 과제

옛 연기군의회를 토대로
미래 행정수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5년 8월 25일은
지난 13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2012년 7월 역사적 개원과 함께
첫 회기를 지나
100회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100회기 의미와 그간의 여정 그리고 성과는"

100회기의 의미는 매년 정례회 2차례와 임시회 5~6차례를 꾸준히 열어왔다는 데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연간 회기 총일수가 100일 이내라고 보면, 최대 1만일동안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벌여왔다는 뜻도 품고 있다.

민선 1~4대 의회를 보내면서, 그야말로 쉴 틈 없는 여정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생 도시에 새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발버둥도 있었다.

예·결산안 심의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 심사, 시정·교육 행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주제별 연구모임 및 현장 방문, 공무 국외연수, 회기별 언론 브리핑, 결의문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의정활동이 이어졌다.

그 사이 2022년 국회 분원 설치법(국회법)과 대통령 집무실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의 여·야 합의 통과란 결실을 함께 찾았다. 궁극적 목표인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정 특례 확보'부터 '세종시청사 및 세종예술의전당 규모 확대 등 도시 필수 인프라 확충', '종합운동장 건립 대응', '중앙공원 2단계의 바람직한 미래', 'KTX 세종역 신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 부여', '읍면동 지역간 상생 발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속한 건설', '상가 공실 해법 찾기',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감사원 같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촉구' 등에 이르는 핵심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탰다.



중도일보
세종본부 본부장(부국장)
이희택

동네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풀고, 발전 요소 찾기와 갈등 조정에도 진력을 기울여왔다.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전국 1위 등의 눈에 띄는 성과 지표도 확인됐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일 100회기 마무리는 공과를 떠나 시민사회 모두가 큰 박수로 격려할 일이다.

"1인 다역과 진영 논리, 제3지대 부재 등에서 비롯한 한계도 뚜렷"

그럼에도 이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 제반 여건은 녹록지 않았고, 여전히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을 둘 수 없고, 구청과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특성상 1인 다역이 불가피한 상황은 늘 아킬레스건이다. 전문위원 5명 및 팀원 27명에다 정책지원관 10명, 입법지원팀 5명 등 지원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위안 요소다.

의정활동은 의회 청사 내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구 주민 간담회 및 의정 보고회, 지역 봉사, 소속 정당의 업무 지원 등의 대외활동을 포함해 셀 수 없이 많다.

때로는 "하는 것 없이 바쁘다"란 말이 절로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때문에 조바심이 생길 법도 하다. 4년마다 찾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와 당원 모집 배가, 물밑 후보 경쟁 등은 이 같은 심리를 더욱 자극한다.

그래서일까. 4대 의회를 거치며 재선 의원은 2대 7명, 3대 5명, 4대 3명으로 점점 줄고 있다. 공천 과정의 가산점이나 경선 룰 자체의 모순이 일부 있으나, 재선을 위한 기반 다지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은 '땅 투기' 의혹과 '개인 일탈'로 탈당 또는 낙마에 이르기도 했다.

또 다른 한계 지점은 주민 이익과 지역 발전에 앞선 '진영 논리'에서 비롯한다. 소위 '당론' 앞에선 대의명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4대 의회 들어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잡음과 갈등을 되풀이하는 모습은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빛축제(12월) 예산 투입', '행정수도 운동 주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의 의제에선 건건이 충돌하며, 양당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정치의 양극화 양상도 여전하다. 출범 초기에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우위를 보이다 2대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다. 3대 의회에선 무려 18대 1의 의석 점유율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고, 4대 의회는 현재 12대 7이다.

진보당과 정의당이 제3지대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10년 가까이 단 1석의 시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채 사실상 존재감을 잃고 있다. 2024년 하반기 등장한 조국혁신당도 쇄빙선 역할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당내 성 비위와 줄 탈당, 내부 권력 다툼 등에 의해 침몰 위기에 있다.

결국 거대 양당 사이에서 또 다른 정당의 원내 진출은 해묵은 숙제로 남겨져 있다. 견제와 균형, 선의의 경쟁 없이 도시 발전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또 다른 분수령! 시민들의 선택지 중요!"

100회기를 넘어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또 다른 100회기를 맞이하기 위한 분수령이다.

그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 지점을 넘어서려면, 의원 개개인의 노력을 넘어 각 당 차원의 혁신 노력이 필수적이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민들의 선택도 중요하다. 정치권을 상대로 요즘 유행어인 '밀(고)당(기기)'을 잘해야 한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는 격언을 되새겨보자.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4년간 막중한 임기를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더 큰 도약과 행정수도 완성이란 과업 달성을 위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들자.





시민X의회 손 맞잡고

세종시의회의 내일을 여는 응원과 격려, 당부의 메시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종시의회를 만듭니다.
시민과 의회가 맞잡은 손, 큰 울림이 있는 든든한 동행의 장을 만나봅시다.

저는 시의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문화 공간 확충 같은 주제가 자주 다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청년들이 직접 의회와 협력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해 나가는 구조가 마련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수민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좋습니다.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심의와 성과평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조선화

세종시의회가
벌써 100번째 회기를 맞이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세종시의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할게요!

민현희







세종시의회 100번째 회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작은 불편부터 도시 전체를 바꾸는 정책까지
세심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민으로서 참 든든했습니다.
세종시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늘 시민과 함께하려는 세종시의회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힘써주시길 바라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태옥

언제나 든든한 시민 우선 정책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 응원 하겠습니다.

박준규

벌써 100회기라니,
세종시의회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이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해
온 과정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넘어 200회, 300회까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며,
세종의 내일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하승연

세종시의회 100번째 회기를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승승장구하세요.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태한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느꼈어요.
의정활동을 보면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세종시민들을 신경 써 주는 게 느껴집니다.
세종시의회 응원합니다!!

최주현

FOCUS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회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기념하여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총 5개 부문 26명(개인 25명·단체 1팀)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현미·김현옥·윤지성·안신일·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등 3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등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국유화 및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했다. 이후 2025년 8월 양 지자체는 국가 소유·관리 방식 전환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조치 즉각 추진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 수립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9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용어 안내
-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
-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위
- 산업건설위원회: 산건위
- 교육안전위원회: 교안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1차 본회의 [2025. 7. 30.]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612	의장	제9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613	의장	제9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614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제100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1차 본회의 [2025. 8. 25.]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703	상병헌 의원 외 5명	행정수도 세종 심장부에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	–
2	4704	의장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705	의장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	4702	김현옥 의원 외 12명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	–	의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	–
6	4706	의장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7	4707	의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8	–	의장	휴회의 건(2025.8.26.~9.7./13일간)	본회의	–	원안가결

2차 본회의 [2025. 9. 8.]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708	의회운영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	-	원안가결
2	461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3	4617	시장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4	4618	시장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	461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	4620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7	462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8	462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9	462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0	462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1	462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2	4626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3	462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4	462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5	462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6	463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7	4653	여미전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8	4654	김현옥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19	4655	이순열 의원 외 5명	세종평생교육 · 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0	4656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21	4657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22	4658	김효숙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23	4659	상병헌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660	박란희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662	홍나영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6	4663	이순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7	4664	김재형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665	김현미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9	4666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0	4667	박란희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668	여미전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669	이순열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3	4631	시장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632	시장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5	463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6	463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7	4635	시장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8	4636	시장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9	4637	시장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638	시장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4639	시장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64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3	464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4	464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45	4643	시장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46	4644	시장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47	4645	시장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48	4646	시장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49	4670	김효숙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50	4671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1	4672	김재형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2	4673	상병헌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3	4674	최원석 의원 외 17명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4	4675	김재형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5	4676	김재형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6	4677	김광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57	4678	김재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58	4679	김효숙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수정 가결	수정가결
59	4680	김광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0	4681	김재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1	4682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2	4683	김현옥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3	4684	김현옥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4	4685	김재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5	4686	안신일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66	4687	김재형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 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67	4688	김광운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8	4689	이현정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9	4690	최원석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0	4691	김효숙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1	4647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2	4648	교육감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3	4649	교육감	민간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4	4650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5	4652	교육감	2025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6	4692	김동빈 의원 외 15명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7	4693	박란희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8	4694	김충식 의원 외 16명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9	4695	윤지성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0	4696	이현정 의원 외 15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1	4697	박란희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2	4698	윤지성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3	4699	윤지성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4	4700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5	4701	유인호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6	4591	김효숙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87	4616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8	4709	상병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사직허가)

interview 1

‘효율적이고 유용한’ 의원을 꿈꾸다

여미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사적으로 정치에 능통했던 이는 모두 같은 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바로 ‘효율적인’ 가치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에 몰두하고 신념에 사로잡히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이행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효율성과 유용성,
이 융통함의 가치를 내세워 세종시 살림살이를 이끌어나가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나 ‘쓰임이 있는’ 의원이 되고 싶다는 여미전 위원장을 만나봤다.

Q — 제4대 의회 후반기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 소감과 포부를 전해주신다면?

A — 우선 저를 제4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위원회의 장은 세종시와 교육청 예산 전반을 검토하고 살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간 제게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믿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 예산이 소외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면밀히 살피려 한다. 나아가 세종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전한다.

Q — 예결특위 활동에 임할 때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자 하는지?

A — 세종시는 아직 자족 기능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 있다. 따라서 예결특위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예산 심사의 경중과 선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최우선 가치는 '효율적 분배'다.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부분 없이 민생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검토를 거듭하며 면밀하게 심사하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자 한다. 발전적이지 않은 소모전은 지양하여 논의의 장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Q — 이제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뿌듯한 점과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 초선 의원으로서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힘썼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해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었을 때 그 보람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아쉬운 점은 행복청, LH, 국방부 문제 등 세종시 소관이 아닌 중앙정부 기관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주민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했던 점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해 시민의 고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부적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 부분이기도 하다.

Q — 현재 활동이 종료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다.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 의원으로서, 앞으로 지역소멸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지역소멸특위 세종시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속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절감했다. 이에 다양한 자료 검토와 연구 끝에,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를 발제하며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등 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역 소멸은 한 개인의 실천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지휘봉을 잡아야만 한다. 그 때문에 특위 활동 당시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 비자 제도 개선,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 및 국적 부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 의정활동을 하면서 달라지거나 발전한 면모가 있다면?

A —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의원직을 역임하기 이전에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때는 전체적인 흐름보다 직면한 특정 현안에 더 집중하곤 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문제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흐름을 짚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 때

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비유하자면 시민들이 무성한 풀과 나무를 헤집고 길을 찾아갈 때, 높은 곳에서 숲의 구조를 보고 바로 이쪽이 길이라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Q — 훗날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보냈던 시간을 회고한다면 어떤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A — 아마도 제 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도 남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일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보는 경험은 '아, 내가 정말 유용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즉, 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세종시의 변화를 도모함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여미전, 정말 잘했다. 기특하다'라고 기꺼이 자평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

Q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세종시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가 있다. 저는 시민들께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처럼 유용한 시의원, 여미전입니다." 이 인사말은 제 정치적 소신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함축적으로 담은 표현이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역화폐처럼, 저 또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늘 유용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처럼 유용한 시의원 여미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interview 2

때를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파

안신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안신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는 '때를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남은 기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정활동 결실을 수확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요즘 말로 하면 때를 잘 맞추는 '타이밍'의 귀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를 관장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를 알고 실행에 옮기는 이의 진가가 더욱더 빛나는 이유다.
투병이라는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고 더 절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게 됐다는
안신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그가 들려주는 '타이밍의 정치'를 만나본다.







Q — 현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를 역임 중이시다. 소통과 협치를 위해 스스로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지?

A — 성경에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일한다'[1]는 말이 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자라나야 할 때, 추수해야 할 때가 모두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을 우리 4대 의회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을 때'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세종시 구석구석 살펴보고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했는데, 그렇게 잘한 것들을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교섭단체대표로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앞으로도 때를 알고 행동하며 양당 간의 협의를 이끌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잘한 점들을 자양분 삼아,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 가치로 두는 점이자 목표다.

Q —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세종 인재 참여 연구모임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 간단하게 연구모임 소개와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A — 제목 그대로, 이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윤곽도 서서히 또렷해지고 있다. 해당 연구모임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같은 미래 세종시의 변화에 대비해 세종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장차 세종을 이끌 청년들이 지역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인재 채용의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 실속 있는 채용 정책을 논의하고,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원 한 명이 임기 내에 연구모임을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착공이 확실해진 시점에 시의성 있는 연구모임을 이끌게 돼서 뜻깊다. 이 역시 적시에 이루어진 의정활동이라서 개인적으로 보람차기도 하다.

1) 누가복음 12장 42-43절.

학생들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글을 잘 쓰는 학생,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는 학생, 편집에 재능이 있는 학생 등 재능이 다양하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세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리 세종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남고 싶지만,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아 지역을 떠나는 것이 바로 수도권 밀집과 지역 소멸의 첫 단계다.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도맡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이제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A — 개인적으로 혈액암 투병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가 있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가치로 와닿았다. 특히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는 정말 이것이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준비했다.

시정질문의 골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국가적인 이슈에 지역의 문제가 묻혀 있을 때라, 누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발언이라 기억에 남는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의회에서 하는 모든 발언이 절박했다. 한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라 여겨졌다.

Q — 의정활동을 하며 새로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A — 시민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가 서로 굉장히 달랐다는 점이다. 의원으로서 세종시 구석구석을 살피기도 했지만, 행정 업무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정말 많았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으면 수일 내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예산서 하나에도 그 뒤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 사전 조사,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 내부의 변화 한 발 한 발에 이 많은 분의 사연이, 노력이 깃들어있구나, 깨달을 수 있었다.

Q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앞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밤낮으로 힘쓰겠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저는 세종시가 참 좋아서 이 도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다. 제 의정활동이 남긴 걸음 하나하나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남긴 업적 모두가 세종이 자랄 수 있는 비가 되고, 뿌리내릴 흙이 되었길 소망한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interview 3

지방의회에 필요한 것은 '소통 문화'

김광운 의원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그 집단을 공동체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세상에 단 한 명의 사람만 존재한다면 대화도, 합의도 필요치 않다.
역으로, 인간이 두 명 이상 있다면 이러한 소통 과정이 공동체를 이룩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통' 어쩌면 뻔하고 당연한, 그렇지만 없어선 안 될 공생의 필수조건이다.
지방의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소통 문화'라는
김광운 의원의 이야기를 청해본다.

Q — 이번 제4대 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전한다면?

A — 뿌듯했던 점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만족감이 저에게로 전달될 때였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정말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마주하자고 마음먹었다. 민원이 발생한 곳, 그 민원을 전하게 된 상황과 당사자를 직접 대면해야 의원이 민원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해결됐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셨다. 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은 세수부족이나 여러 상황이 겹쳐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기도 하다.

또 제가 세 번의 낙선을 겪고 의회에 들어왔다. 그런 만큼 기대도, 포부도 원대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정당 간의 이해관계 차이, 견해 차이가 의정활동의 벽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의회 전체가 시민에 대한 진심이 1순위라는 인식을 점점 잊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협치가 더 원활했다면 의정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원만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Q — 교섭단체대표를 여러 번 역임하신 것으로 안다. 소통의 중심에서 노력하신 시간이 짧지 않은데, 그로인해 깨달은 '협치 방법론'이 있다면?

A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는 의기투합해서 시민을 위해 협치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을 생각하고, 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인다면 될 일도 안 되기 마련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수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첨예한 갈등 상황을 겪으며 굉장히 힘들었다. 장외 투쟁이나 삭발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소통을 위해 호소했으나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그래서 결국 회의적인 마음에 이르기도 했다.





Q — 다음 교섭단체대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다음 교섭단체대표는 양측 모두 서로의 당에 얽매이지 않고 정파를 초월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방의회는 국회가 아니다. 중앙 정치의 장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과 지방 정치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은 확연히 다르다. 의회에서는 각 당의 경계를 허물고 세종 시민의 삶을, 세종의 경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서로 머리 맞대며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각 당 대표들이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이 자주 있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여야, 구도심 신도심, 서로의 지역구를 초월한 소통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Q — 제4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A — 의원직을 시작하기 전에는 들어오기만 하면 빠르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외부에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며 왜 이렇게 시민 의견 반영이 느린지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다. 체계의 한계나 예산의 한계, 그리고 절차적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 행정 공무원분들과 더불어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도 기초와 광역 업무를 함께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에서 업무를 재빨리, 잘 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더 면밀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Q — 제4대 의회, 먼 훗날 회고한다면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A — 아마 너무나도 파란만장했던 '격동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좋은 일, 나쁜 일 고루 있었지만 정말 굵직한 이슈들로 티비에도 자주 나온 것 같다(웃음). 돌아보면 이게 꿈이었나, 할 만큼 휘몰아쳤던 기간이었다. 그만큼 많은 세월이 지나도 생생한 기억으로 새겨지리라 생각한다.



Q — 남은 의정활동 기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A — 처음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며 남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주민과의 대화처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도 자주 개최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현안과 얽혀있는 기관 당사자들과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싶다. '불통 문화'가 아닌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친구끼리 만나 뭘 먹을지, 뭘 할지 결정하는 것도 소통이 없으면 불가하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적 대화 속에서도 소통과 합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끔 잊는다. 그 중요성을 잊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의정활동이 지방의회에는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뭘 잘했고, 어떤 면은 조금 부족했는지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되새겨보면서 제4대 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Q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우선 시민들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층제인 우리 세종시 구조를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위해 동서분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해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 양해해 주시면 양질의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전화를 주신다든지 찾아와 주시라.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맞이하고, 목소리는 경청하여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드리겠다. 믿음 가는 시의원, 현장에서 함께 하는 시의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

interview 4

가장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

최원석 의원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니, 어떤 의미일까?
정치인을 인터뷰하며 들은 묘사 중
가장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최원석 의원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떠올릴 때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와 대조되는 행보로
의정활동을 점철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외부와 소통하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구태의연함을 지양한다는 것.
가식과 권위를 벗어던지고 행동과 성과로
세종시민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청년,
최원석 의원과의 진솔한 인터뷰를 풀어낸다.





Q —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 간단하게 연구모임 소개와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A — 이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세종시 교통 체계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세종시는 계획도시지만 모든 생활권마다 그 특징과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교통 체계는 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각 생활권에 점차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자가용이든, 버스든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동네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체계가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세종시 곳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일어난 여중생 사망사고는 해당 연구모임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다. 이미 만들어진 교통망은 불편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아직 체계가 만들어지는 중인 곳은 안전과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Q — 2023년 본지 겨울호(통권 제38호)의 인터뷰 당시, 의정활동 좌우명을 수도선부水到船浮라고 전한 바 있다. 여전히 좌우명인지, 자평한다면 부합했던 의정 활동이었는지 궁금하다.

A — 그렇다. 여전히 좌우명이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의미이다. 제 의정활동은 모두 물을 채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저 최원석이라는 배가 뜰 것이라 생각하고 활동에 임했다. 열심히 임했기에 후회는 없다. 물을 채우는 시간 덕에 세종시가 발전하고, 그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





좌우명에 부합하는 기간이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제게 남은 의정활동 기한은 여전히 '물을 채우는' 시간일 것이고, 제4대 의원으로서 활동했던 순간들 모두 제 좌우명에 부합하는 인생의 한 구간으로 거듭 낼 것이라는 다짐은 지금 전해드릴 수 있겠다.

Q — 이제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뿌듯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중 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위원으로 3번이나 꼽힌 점이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량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하다. 저를 뽑아주신 세종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했다는 마음도 들고, 스스로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구나'하는 성취를 느꼈다. 아울러 직업적 전문성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의지가 강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Q — 의정활동을 하며 새로이 관심이 생긴 분야, 혹은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 기존에는 세종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또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산업 분야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세종시 상권 문제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상권의 문제는 지역 인구수, 소비 패턴과 결부되어 있다고들 생각하신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준다. 대중교통과 도로망, 인근 주차시설이나 건물 소재지 및 근처 대형 시설 유무 등,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다. 이중 시에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 들어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시의원이 크게 중요한 일을 한다기보다 앞장서



며 얼굴만 내비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직접 일해보니 정말 밤낮,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너무 바쁘게 일해야 하는 직업이었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다. 잔업에, 야근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는 직장이다.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

Q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 제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사실 제 인생의 작고 큰 목표 중 정치인이 되겠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도전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 싶었달까(웃음).

가식과 권위를 싫어하는 제 성격은 이곳에서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 시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와 돌아보니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소식

의회운영위원회	51
행정복지위원회	52
산업건설위원회	54
교육안전위원회	5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8
윤리특별위원회	59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60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61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62





세종시의회 사무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심사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시의회는 시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조직 관리에서도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업무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이현정 위원은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형식적이라거나, 과잉 제·개정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홍나영 위원은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학교를 민주주의 대표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신일 위원은 "제4대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홍보 조직 확대 방향을 정리하고 지속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 관련 비용을 증액하고,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236만원을 감액한 121억 5,008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홍나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 인구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



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되었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66센터 운영, 테니스 선수단 해체 등에 대한 다방면의 지적도 이어갔다.

김영현 부위원장 또한 테니스팀 해체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소송 비용으로 또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실효성 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민간 전문가 확대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구조 조정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대책 강화 등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조례안 등 40건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고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7억 510만 2천원 증액 편성한 4,967억 5,174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3억 2,501만 9천원 증액 편성한 8,046억 2,461만 4천원으로 각각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사업 예산 증감 없이 원안가결했다.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성과 공유 간담회 개최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9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실시한 청년농업인 국외연수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지역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은 현지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선진사례에서 보고, 느낀 바를 공유했으며, 이를 세종시 농업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고, 화훼농가 자동화 설비, 친환경 포장재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년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농업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이 서로 협업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립하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9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총 19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과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후 고복저수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아산 신정호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시청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시민안전실은 기정예산 184억 334만원에서 7억 2,412만원(3.93%)이 증가한 191억 2,746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34억 9,858만원에서 3,600만원(0.05%)이 증가한 735억 3,458만원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소방학교 교육훈련 인건비 등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질의를 통해 사업 내용과 효율에 대해 파악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동의안 5건 중 '민

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중 3일에 걸쳐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치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파악하며, 세종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고를 기울여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치했음에 대한 안주'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확실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모든 관계 공무원은 부서 내외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창의성과 효율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미전 위원장


김학서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안신일 위원


유인호 위원


홍나영 위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원 대비 5.02%(1,057억원) 증가한 2조 2,133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다.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7.1.~'26.6.30.)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제4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임기 '25.7.1.~'26.6.30.)를 구성하고, 7월 8일 제98회 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마지막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김충식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구현 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정 의원은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 특별위원회


김충식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재형 위원


김현미 위원


윤지성 위원


이순열 위원


최원석 위원

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현장방문 실시해 어진동 환승주차장 운영 여건 및 하자 조치 현황 점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9월 8일 다음 달 인수를 앞둔 어진동(1-5생활권)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6명과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교통정책과장, 세종시설관리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날 인수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환승주차장 인수계획 및 하자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차 통합관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당부와 함께, "현재 환승주차장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과 단체 정기 주차 수요 확보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임대 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수지율 증가를 위해 적극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6차 회의서 미래전략수도완성 교통분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는 9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장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에 집중했다.

시에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보고하며, 올해 하반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공개되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거장 신설 필요성, 환승센터 건설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의 적기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충식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여미전 위원


윤지성 위원

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국회 환노위 방문 간담회 개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크린넷특위)'는 〈크린넷 현안 해결과 입법 마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9월 1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보좌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특위는 현장방문, 토론회 등 그간의 활동을 통해 ▲크린넷 설치·운영·안전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 부재로 발생한 위험 대비책 ▲주민 비용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 ▲크린넷을 이용한 음식물 분리 집하 및 재활용 불가로 발생한 환경문제 등 입법 조치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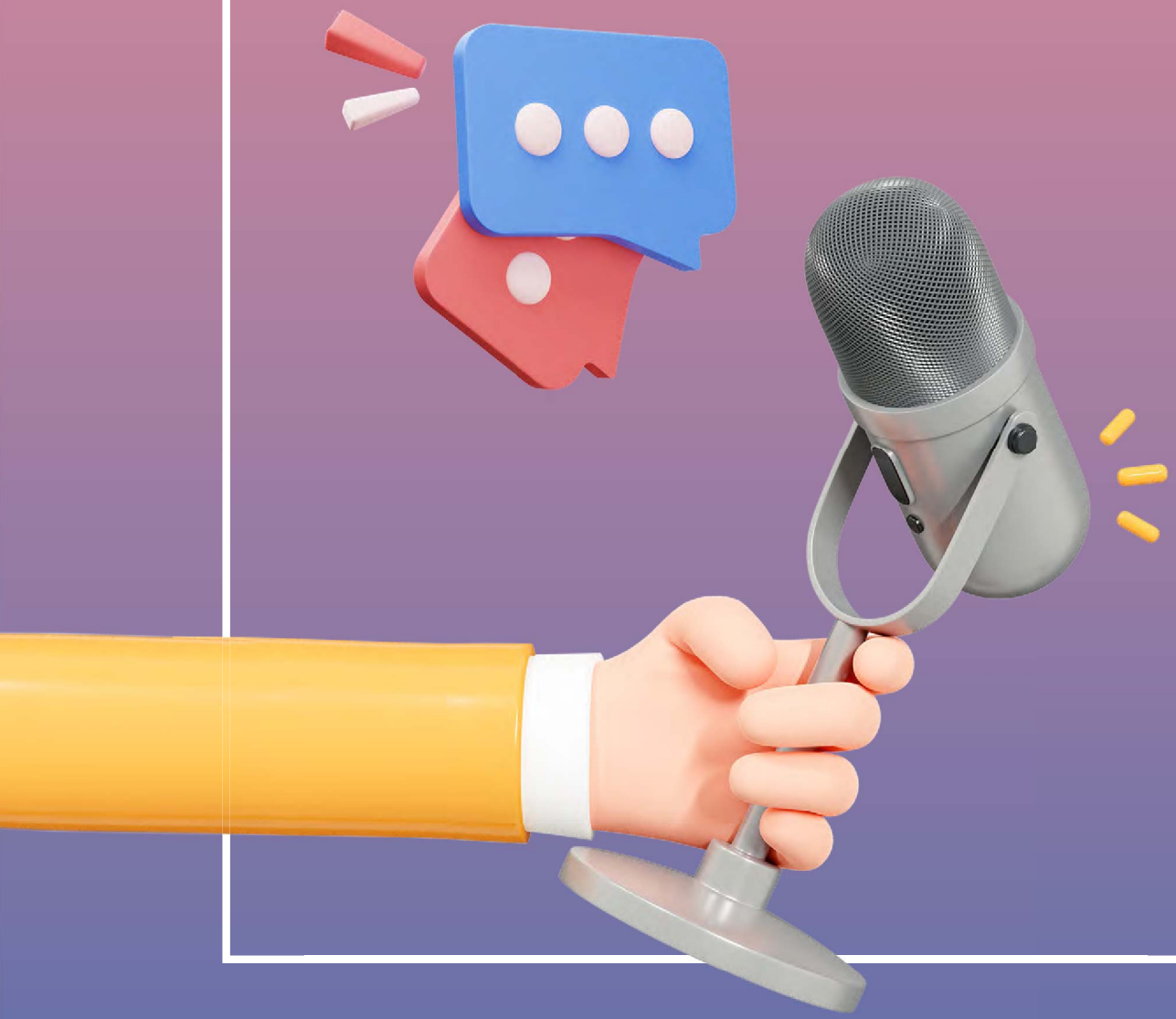
이번 간담회는 이에 대한 입법 실현을 위해 김주영 의원실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그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옥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를 시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물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회

5분 자유발언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64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67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동빈 의원
부강·금남면, 대평동,
국민의힘

하천 역류 침수 피해 대비 금강 준설·배수펌프장 확충 시급

김동빈 의원은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도 대전시처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작업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남면 성덕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이 부재하여 하천 역류 시 곧바로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금강 본류에 대한 정기적 준설 작업 재개 ▲지방하천 제방 보강 및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 ▲유역 통합관리 협의체 구축 ▲상습 침수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영현 의원
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확보가 세종시 미래!

김영현 의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심지어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최소 법정 주차면수’보다 여유 있는 주차장 조성, 통행량 적은 이면도로 등 유휴부지 한시적 사용 조치 등을 제안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관내 24시간 정신질환관련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부정청탁법 위반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이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즉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종시민과 체육인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보행문화 실태 지적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정비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보행시설물의 인수 전 관계법령 준수 여부 철저 점검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자전거·PM 방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보행문화 정착을 제언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방안 제시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고, 이어 세종시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장과 차량은 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승 거점 구축과 환승 편의 보장 ▲어울링의 대중교통 인정 및 환승시스템 도입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정류장 환경 정비를 종합 제언하며, "외형 확장보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 위협… 신중한 재검토 필요

김현미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시험장 예정 부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총 23곳의 보육시설 및 학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 영향 평가를 선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시험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 지역을 피해 안전한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김현옥 의원은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층, 지하 심층, 밀집 건물이 많은 세종시 건물 구조를 설명하며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 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9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거약자법 제정 이후 주거약자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에도 관련 대책이 전무하다”며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신일 의원
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장사시설 수급 위기 대비와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 시급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장사시설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지향적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먼저 세종시가 운영 중인 은하수공원이 2010년 개관 이후 전국 유수의 종합 추모시설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봉안시설이 2032년경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봉안시설 수요 절감 및 증설 ▲화장로 교체·증설 로드맵 마련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등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금부터의 준비가 시민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 협상력 강화 필요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윤지성 의원
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

수포자 없는 세종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윤지성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를 위한 전략적 수학 공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의원은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수리적 분석 능력이 필수다. 이를 길러주는 대표적 학문이 바로 수학”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수학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수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현실에서의 수학교육은 깊이 있는 탐구보다 입시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이 경쟁적인 사교육에 의존해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포자 없는 세종시의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한 맞춤형 수학교육 시행 ▲면지역 ‘수학탐구교실’ 설치 ▲수학체험센터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세종에서 놀자, 쉬자

더위는 저 멀리~ 이제는 놀기도 좋고
쉬기도 좋은 가을!
세종도 행사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을 수놓는 낙엽처럼
다채로운 즐길 거리,
어떤 행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 모든 공연은 예매 필요

양치기소년단& 황가람과 함께하는 10월 야민락 콘서트



양치기소년단&
황가람과 함께 떠나는
단 하나의 음악 여행

2025년 10월 29일, 20:00
세종예술의전당 ₩ 전석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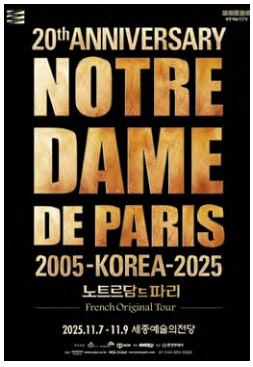
뮤지컬 <멤피스>



DJ 듀이 필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쾌하고
감동적인 스토리!

2025년 10월 25~26일, 14:00/19:00
세종예술의전당
₩ R석 170,000원 S석 140,000원 A석 110,000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프렌치 오리지널>



20년 이상 한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랑스
뮤지컬의 대표 흥행작!

2025년 11월 7~9일,
7일 19:30 / 8~9일 14:00, 18:30
세종예술의전당
₩ VIP석 190,000원 R석 150,000원 S석 120,000원

뮤지컬인형극 <삐노키오>



이탈리아 인형명장의
손끝에서 태어나
한국적 감성으로 물든
인형극

2025년 11월 8일, 11:00/14:00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석 19,000원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부퍼탈 탄츠테아터



우리 시대 가장 독보적인
예술가 피나 바우쉬,
25년 만에 돌아오는
그녀의 위대한 유산

2025년 11월 14~15일, 14일 19:30 / 15일 15:00
세종예술의전당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경기무용단 춤 드라마 <세종>



아름다운 한글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예종의 눈에 비친
세종의 시대를 춤 드라마로
만나봅니다.

2025년 11월 18일, 15:00/19:30
세종예술의전당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시야제한석 10,000원

연극 <나와 할아버지>



양경원·표지훈·정선아·
김종현, 네 배우가
빚어내는 유쾌하고
따뜻한 감성 휴먼 드라마

2025년 11월 21~22일, 21일 19:30/22일 15:00
세종예술의전당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시야제한석 10,000원

의정주요뉴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

2025.08.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월 22일, 이번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5.09.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 세종집무실 건립 의지 표명 환영 논평 발표

2025.09.17.



9월 17일 세종시의회는 “새 정부의 세종집무실 건립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해당 논평에는 지난 9월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관련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세종에서의 국무회의는 단순한 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완성의 신호탄과 같은 역사적 첫걸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공감과 환영의 뜻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소멸과 인구집중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며 의지와 노력을 밝혔다.

2025년 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2025.0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반부패·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정보

Ⅰ 생활법령 75

Ⅱ 주요입법동향 80

Ⅲ 법령해석사례 84

Ⅳ 최근시행법령 86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88



I 생활법령

사례 01 건설기계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까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굴착기 운전자인 김운전씨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굴착기의 뒷부분으로 공사현장 근로자인 A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운전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운전씨는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별법」(이하 "교통사고특례법"이라 함)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① 검사:
김운전씨가 굴착기를 후진한 행위는 공사 작업 중 하나일 뿐이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운전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김운전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평결

정답은 2번.

김운전씨: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굴착기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은 차를 운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굴착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저는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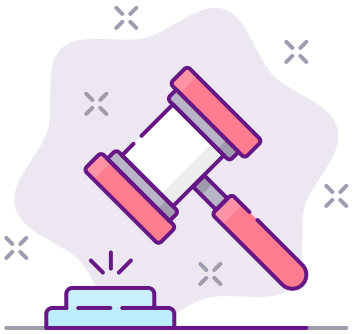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함)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교통사고처리법」 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

나.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 수행 과정이나 작업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면, 업무상 과실로 인

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산재 처리,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5년 8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생활법령

사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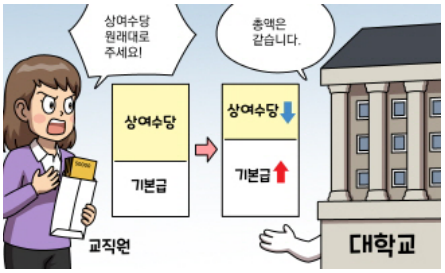
기본급을 인상하며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일까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나교원씨는 A대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로, A대학교는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기본급은 대폭 인상하고 상여수당은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교원씨는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A대학교를 상대로 변경 전 보수규정에 따른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교원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① 나교원: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해서 상여수당을 삭감하는게 말이 되나요? 상여수당이 줄어든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동의도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변경했으니 이건 무효라고요.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도 같이 주세요!

② A대학교:
상여수당은 삭감됐지만, 기본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된 상여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총액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을 삭감하겠습니다.

평결

정답은 2번.

A대학교: 상여수당은 삭감됐지만, 기본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된 상여수당과 기본급을 합친 총액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수당을 삭감하겠습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나.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이 함께 이루어졌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비교 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2011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전체 보수액에서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수당 비율을 낮추는 보수체계의 개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학년도부터 개편된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정해진 봉급액을 따름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대학교 교직원들 사이에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여수당을 감액한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의 일부 항목이 감액된 경우라도 그 불이익 여부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결일 : 2025년 8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Ⅱ 주요입법동향

01. 최근공포법령

01 한국산업은행법

[공포 '25. 9. 9. /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02 방송문화진흥회법

[공포 '25. 9. 9. / 법률 제21046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03 상법

[공포 '25. 9. 10. / 법률 제21044호]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03. 최근 국회 접수 통과(주요법안)

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그런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음.
-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04. 최근입법예고(주요법령)

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등 10인)

[의견제출 '25. 9. 18.까지]

-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0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등 11인)

[의견제출 '25. 9. 18.까지)]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Ⅲ 법령해석사례

질의(법제처-25-0391 / 회신일자 '25. 8. 20.)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약사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각주: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약사법」 제2조제2호 참조))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의무의 주체를 약사와 한약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를 규정하여,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그 조제자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도록 간주하는 등 "약사 또는 한약사"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그 조제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주체 및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 대상인 "약사 또는 한약사"에 해당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안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조제자를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처벌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로 보아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Ⅳ 최근시행법령

0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5. 8. 14. 시행]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5. 8. 26. 시행]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25. 8. 26. 시행]

- 12. 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개발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0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5. 9. 1. 시행]

-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0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5. 9. 2. 시행]

-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법률 제20868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 제외 절차는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절차와 같이 지방공사의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출자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5. 9. 9. 시행]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난 후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보상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25. 9. 3.]

제안이유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녀홍보단 구성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제5조)
나. 해녀홍보단 및 문화홍보대사 해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다.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02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 시행 '25. 9. 4.]

제안이유 군민의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및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영양관리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제6조)
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03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5. 9. 8.]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장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임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6조)
다. 포상규정에 관한 사항(제10조)

04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25. 9. 10.]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변경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세종시의회 2025년 하반기 회기 일정 안내

7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제헌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99회 임시회 : 7.30.(1일)**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100회 임시회 : 8.25.~9.8.(15일)**
-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등
※ 을지연습 : 8.18~8.21.(예정)

9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개천절	4
5	6 추석	7	8 대체휴일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101회 임시회 : 10.13.~10.24.(12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 세종축제 : 10.9.~10.11.(예정)

11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 **제102회 정례회 : 11.11~12.15.(35일)** ※ 수능 : 11.13.
- 시정질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본회의 예정일 **위원회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 또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독자 투고 안내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시민 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포토에세이, 수필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시의회 방청이나 방문,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분,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해 주실 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 주실 분 등
숨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 ☑ **포토에세이 제출 시 사진 원본(5MB 이상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 지양)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 **선정된 분들께는 별도로 회신해 드립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포토에세이 시 5매 내외)입니다.**
- ☑ **적합한 원고가 없을 시 미선정되어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층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접속
https://council.sejong.go.kr/
▶ 홍보관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